



전문가 리포트 02

HBO Max 출범의 의미와 전망

1. 들어가며
2. HBO Max 론칭 배경
3. HBO Max, HBO Go와 HBO Now와의 차별점
4. HBO Max 서비스 개요
5. HBO Max 장단점
6. HBO Max에 대한 반응과 전망
7. 나가며

HBO Max 출범의 의미와 전망

유건식(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

요약문

HBO의 모기업 AT&T가 2020년 5월 27일 AT&T가 HBO Max를 출범했다. HBO Max는 깔끔한 화면 구성, 1만 개에 달하는 다양한 콘텐츠 보유, 이용자 확보의 용이성, 유명인의 콘텐츠 추천 서비스 등의 장점이 있다. HBO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HBO Go를 중단하고 HBO Max의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출시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는 시장에 이렇다 할 파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평이다. OTT 사업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고, 글로벌 OTT의 국내 진입도 멀지 않았다. 국내 사업자는 이에 대응할 전략을 세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지난 5월 27일 미국 OTT 시장에 무서운 강자가 새롭게 진입하였다. 바로 HBO Max다. 이 서비스는 미국의 최대 통신사 AT&T가 소유하고 있는 WarnerMedia가 2018년 10월에 Netflix와 Disney에 대항하여 OTT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힌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HBO는 1972년 설립된 케이블 TV방송으로 <소프라노스>, <프렌즈>, <섹스 앤 더 시티>, <왕좌의 게임> 등의 대표적인 성공 작품을 선보인 회사다. 특히, <프렌즈>는 2018년 한 해 Netflix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본 작품으로, HBO가 HBO Max에서만 서비스하려고 2020년부터 미국에서 연 1억 달러의 유통수익을 포기하고 Netflix에 공급을 중단하였다.



그림 1 HBO Max 론칭 설명회



출처: WarnerMedia

Netflix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기 전까지 HBO는 미국 콘텐츠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다. 애니타 엘버스(Anita Elberse)의 『블록버스터 법칙』처럼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화제도 일으키고, 인기도 얻고, 수상작도 많이 배출했다. 그러나 Netflix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으로 HBO는 2015년 HBO에 가입하지 않고도 HBO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인 HBO Now를 출시하였고, 2019년 2월에는 약 8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AT&T는 보다 적극적으로 OTT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HBO Max를 출시하였다. OTT 시장에서 HBO Max가 갖는 의미, HBO Max의 서비스 내용,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HBO Max 론칭 배경

HBO의 모기업 AT&T는 2015년 7월 위성TV인 DirecTV를 671억 달러(약 8,290억 원)에 사들인 데 이어, 2018년 6월에 854억 달러(약 105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Time Warner를 인수하였다. 이후 영화와 TV 부분을 새로운 이름인 WarnerMedia로 브랜딩하고, 스트리밍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는 AT&T가 Time Warner를 인수할 당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AT&T가 소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HBO, CNN, Cartoon Network, Crunchyroll, TNT, TCM 등의 채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OTT 업체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HBO Max는 올해 5월 27일에 북미에서 론칭되었다. HBO Max의 요금은 14.99달러이며, 2020년에 31개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하고, 1,800개의 영화를 제공한다. HBO 선형 TV 채널 가입자는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론칭 약 한 달 전인 5월 초에는 요금 사전 가입자에게 14.99달러를 20% 할인한 11.99달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했다. 필자가 5월 28일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7일간 무료로 볼 수 있고 이후에는 14.99달러가 청구된다고 되어 있었다. 이처럼 HBO Max의 요금은 Netflix나 국내의 wavve처럼 여러 요금제가 있는 것과 달리 월 14.99달러 단일 요금제이다. 현재 OTT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비싼 편이다. 내년에 광고를 포함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림 2 AT&T 소유 엔터테인먼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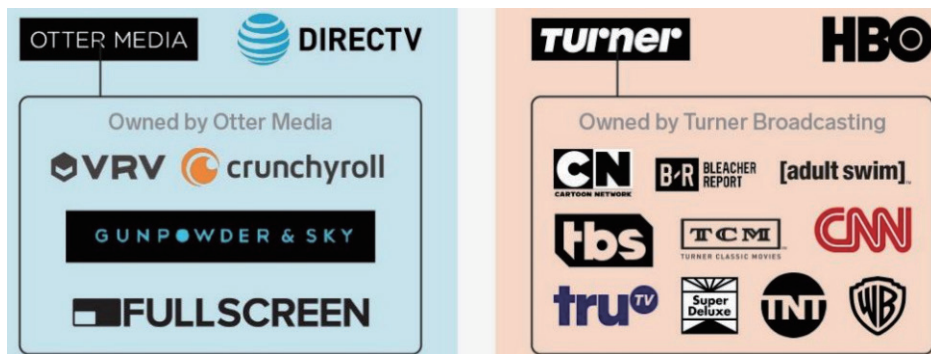




표 2 미국 주요 OTT 월 요금

(단위: 달러)

HBO Max	Netflix			hulu			Disney+	peacock TV		Quibi		Apple TV+
14.99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광고	無광고	hulu+ 실시간	6.99	광고	無광고	광고	無광고	4.99
	8.99	12.99	15.99	5.99	11.99	44.99		4.99	9.99	4.99	7.99	

출처: 각사 사이트 참고(2020.07. 기준)

AT&T는 올해 20억 달러를 들여 HBO Max를 론칭하였고, 현재 3,500만 명의 가입자를 2025년까지 5천만 명으로 늘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7,500~9,0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몇 년간 4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4년이나 2025년까지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AT&T의 CEO Randall Stephenson은 “HBO Max는 Netflix도 아니고 Disney도 아닌 HBO Max다.”라고 말하면서 HBO Max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너미디어의 CEO John Stankey도 HBO Max가 “시장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SVOD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HBO Max, HBO Go와 HBO Now와의 차별점

HBO는 HBO Max를 출시하기 전에도 두 개의 OTT 서비스, HBO Go와 HBO Now가 있으며, 두 서비스 이용자는 추가 비용 없이 HBO Max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출시한 HBO Max는 HBO Go와 HBO Now의 디럭스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HBO Go는 2010년 2월 론칭한 ‘TV Everywhere 서비스’로 HBO 케이블 채널의 가입자가 HBO 채널과 과거 콘텐츠를 VOD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이다. HBO Now는 2015년 3월 케이블 가입을 끊은 코드커터나 가입한 적이 없는 코드네버를 위해 케이블을 가입하지 않고 월 14.99달러에 HBO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한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HBO Max는 HBO Now의 콘텐츠(HBO, DC 코믹스, CNN, TNT, TBS 등)와 HBO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체 오리지널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한다.

HBO Max 론칭 초반에 HBO의 3개 OTT 서비스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에 HBO는 8월 1일부터 HBO Go 서비스를 중단하고 HBO Now는 HBO로 명칭을 바꾼다. HBO Go를 중단하는 대신 HBO Max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그러나 HBO Go를 중단할 경우 스트리밍 스틱인 Amazon Fire TV나 Roku에서 HBO Max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이용자는 HBO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향후 AT&T는 HBO와 HBO Max 두 개의 OTT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나 HBO 서비스 이용자는 큰 차이가 없고, Amazon Fire TV나 Roku 이용자는 HBO Max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HBO Max로 전환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4. HBO Max 서비스 개요

HBO Max의 가입은 기존의 Comcast · Charter · Spectrum 등 케이블 TV, AT&T의 AT&T TV · DirecTV · U-verse 등 유료 TV 서비스, 통신사 Verizon의 Fios TV 가입자는 현재 서비스에서 HBO Max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HBO Now의 9백만 명의 가입자와 AT&T의 AT&T TV · U-verse · Premium AT&T Mobile 등 유료 스트리밍 유료 TV 가입자는 무료로 HBO Max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HBO Max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필자가 직접 5월 28일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다. HBO Max 가입은 이름,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스트리밍 시작 버튼을 누르면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없다. Netflix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콘텐츠를 3개 등록하도록 하는데 HBO Max에는 이 과정이 없다.

로그인 화면이 아주 깔끔하다. Netflix나 wavve처럼 요금제에 따라 동시 이용자 수를 다르게 하지는 않지만, 이용자는 여러 명 등록할 수 있고 동시에 3개의 다른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이용 대상일 때는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영화와 TV 콘텐츠의 등급을 설정하고 암호를 설정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자물쇠 모양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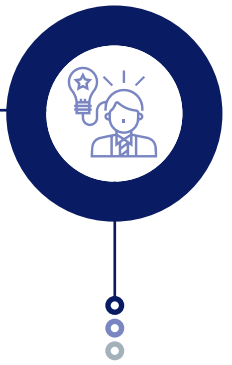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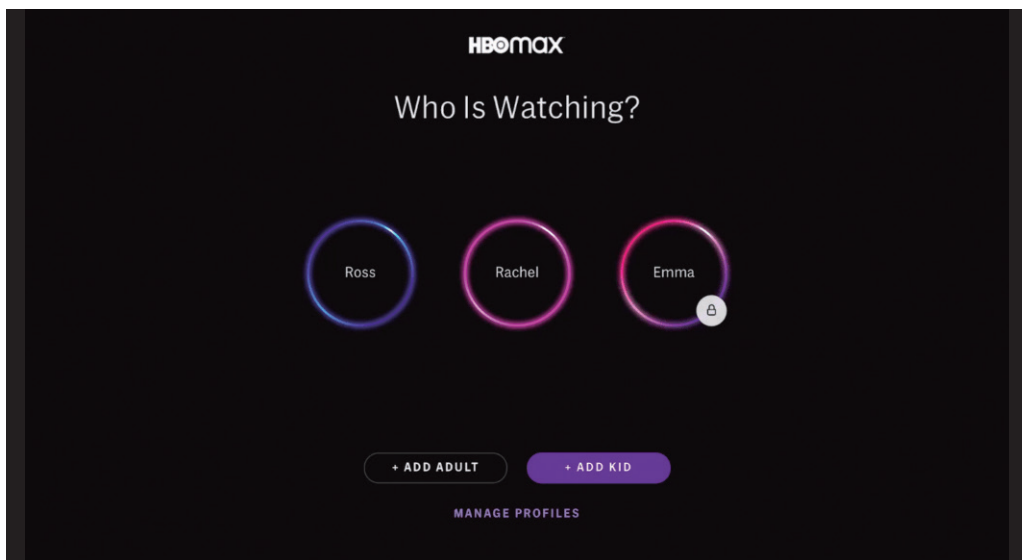


그림 3 HBO Max 가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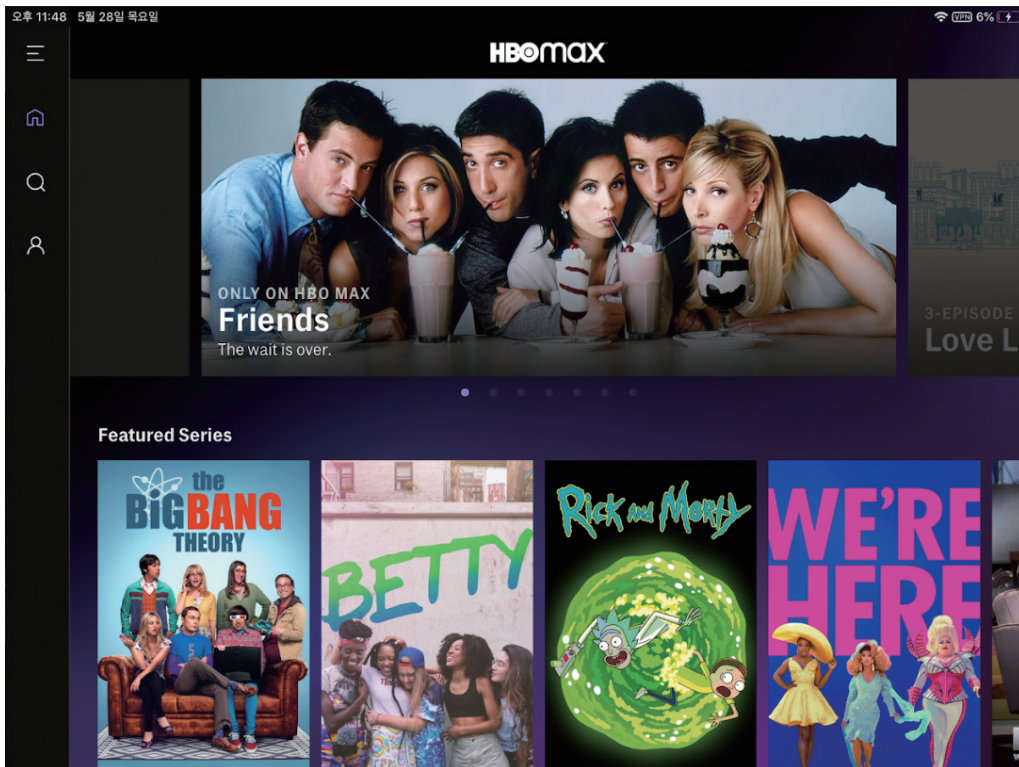
그림 4 초기 화면



HBO Max는 기본적으로 가로 화면 중심이다. 지난 4월 6일 출시한 Quibi가 가로와 세로 화면이 다른 형태의 영상을 보여주는 ‘턴스타일(Turn style)’을 적용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세로 본능이라면, HBO Max는 세로 화면이 지원되지 않는다.

메뉴는 크게 네 개로 홈 화면, 콘텐츠 분류 화면, 찾기 화면, 프로필 화면이다. 홈 화면은 상단과 하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단은 주요 콘텐츠를 배너로 홍보하고, 하단은 보고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어 HBO Max가 내세우는 콘텐츠를 보거나 보던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심플하게 구성해 놓았다.

그림 5 HBO Max 홈 화면



HBO 오리지널로 로맨틱 코미디 앤솔로지 시리즈 <러브 라이프(Love Life)>와 미국 10대를 다룬 코미디 <베티(Betty)>, 힙합의 거물인 러셀 시몬스(Russel Simmons)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를 내세우고, 라이브러리에는 Netflix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었던 <프렌즈(Friends)>를 비롯하여 <루니 튠즈 카툰(Looney Tunes Cartoons)>, <해리 포터마법사의 돌(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 <인시큐어(Insecure)> 등이 있다.

메뉴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은 콘텐츠의 구분에 따라 TV 시리즈, 영화, 오리지널, 신규, 중단 예정, 서비스 예정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다. OTT 서비스가 가입자를 유치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플랫폼에서는 볼 수 없는 독점적인 오리지널 콘텐츠이다. 오리지널은 'Max 오리지널'과 'HBO 오리지널'로 나누어진다.



Max 오리지널은 <크래프트피아(Craftopia)>, <레전더리(Legendary)>, 루니 튤즈 카툰(Looney Tunes Cartoons)>, <러브 라이프(Love Life)>, <엘모와 너무 너무 늦지 않은 쇼(The Not-Too-Late Show With Elmo)>,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 등 아직 6개에 불과하다. HBO 오리지널은 HBO에서만 서비스되는 라이브러리 콘텐츠로 677개 타이틀이 등록되어 있다.

6월까지 신규로 추가될 콘텐츠로는 <루시 인 더 스카이(Lucy in the Sky)>, <애드 아스트라(Ad Astra)>, <포드 대 페라리(Ford v. Ferrari)> 등 15개가 소개되어 있다.

그림 6 HBO Max 오리지널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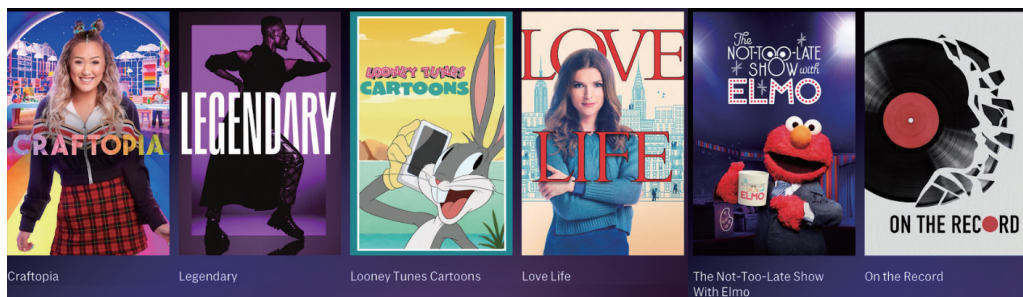


그림 7 신규 예정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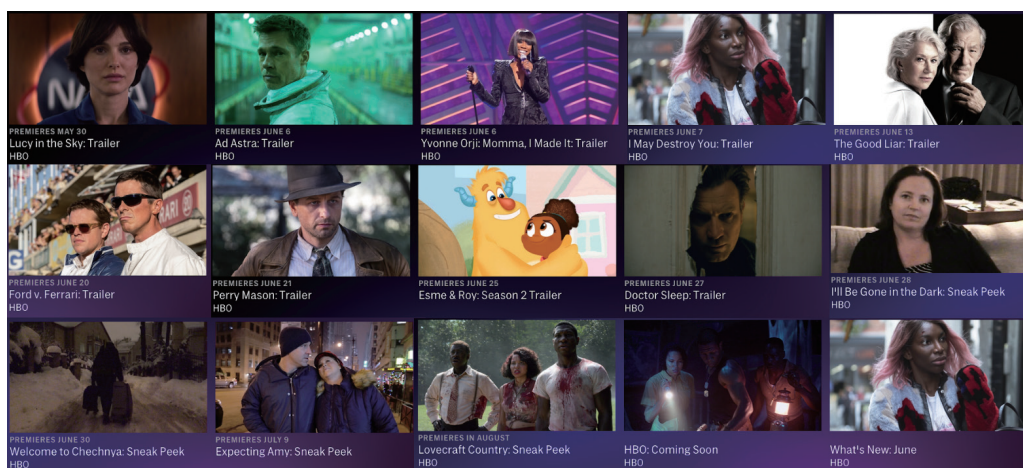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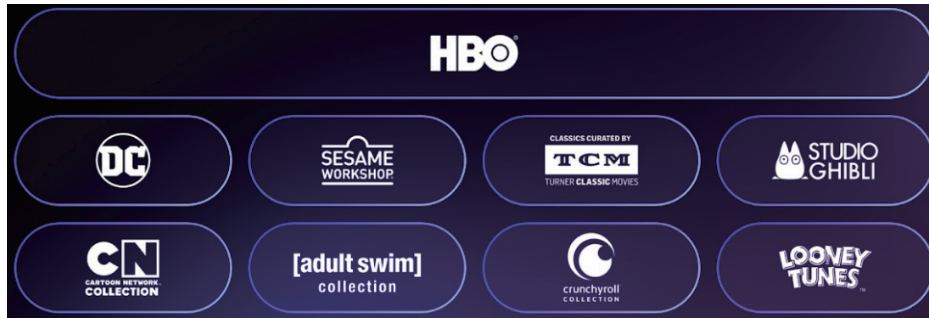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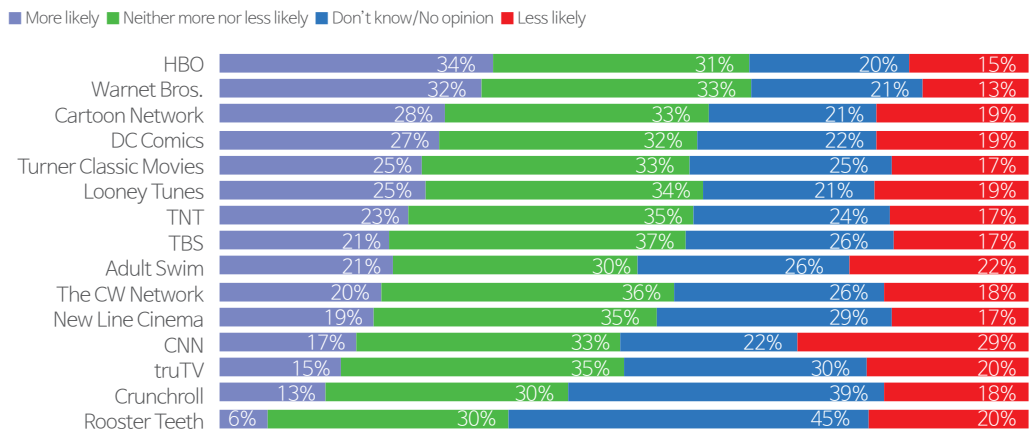
그림 8 브랜드별 분류



중단은 장르별로 액션, 코미디, 범죄, 다큐멘터리, 드라마, 판타지/공상과학, 호러, 국제, 키즈, 라티노, 음악, 뉴스/토크쇼, 리얼리티, 로맨스, 숏폼, 스포츠, 서스펜스로 분류되어 있다. 하단은 브랜드별로 분류해 놓았는데, HBO, <조커(Joker)>와 <배트맨> 등의 DC 코믹스, <세사미 스트리트(Sesame Street)>와 <엘모(Elmo)> 등의 세사미 워크숍, TCM(Turner Classic Movies), <토로로(Totoro)> 등의 지브리 스튜디오, CN(Cartoon Network), CN의 성인용 채널인 어덜트 스윔(adult swim), 애니메이션 채널 크런치롤(crunchyroll), 루니 튠즈가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Morning Consult와 잡지사인 Hollywood Reporter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HBO 브랜드 중에서 HBO Max의 가입을 유인하는 채널로, HBO가 34%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고, Warner Bros. 32%, Cartoon Network 28%, DC Comics가 27% 순이다.

그림 9 HBO 브랜드가 HBO Max 가입에 미치는 영향





5. HBO Max의 장단점

HBO Max의 장점으로서는 첫째, 인기가 많은 방대한 콘텐츠이다. HBO는 지난 20년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였고, 몇 년 전부터 Netflix가 에미상과 오스카 시상식에 두각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압도적인 수상작을 냈었다. HBO Max는 서비스 시작부터 약 1만 시간 분량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는 라이브러리 콘텐츠와 오리지널 콘텐츠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콘텐츠로는 <빅뱅 이론(Big Bang Theory)>과 <프렌즈(Friends)>,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 같은 TV쇼와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 <배트맨>, <슈퍼맨> 등의 시리즈 영화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의 지브리 애니메이션도 있다. 특히 <프렌즈>는 Netflix에 5년간 4억 2,500만 달러(약 5,250억 원)를 받고 유통하던 것을 중단한 것이다. 이 금액은 월 이용료 14.99달러 전액을 수익으로 계산할 경우 472,537명이 5년간 매월 납부해야하는 액수에 해당한다. <빅뱅 이론>도 5년간 6억 달러로 알려졌으므로 가입자 확대가 되지 않는 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액수이다.

오리지널 콘텐츠로는 론칭 시점에 6개를 서비스하고 있다. 2020년에 31개의 오리지널 시리즈를 공개하고, 2021에도 19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가장 기대가 된 것은 <프렌즈>의 재결합이다. 론칭하면서 서비스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늦어지고 있다. 이 외에 <왕좌의 게임> 프리퀄 <용의 집(House of the Dragon)>, 케일리 쿠오코가 출연하는 <승무원(The Flight Attendant)>, 리들리 스콧(Ridley Scott)감독의 공상과학 드라마 <늑대가 기른(Raised by Wolves)>, DC 코믹스의 <그린 랜턴(Green Lantern)>, <가십걸(Gossip Girl)> 리부트 등이 있다. Ampere Analytics에 따르면 2018년 4분기에 워너미디어의 오리지널 커미션이 7%에 불과했는데, 2019년 4분기에는 73%에 달할 정도로 오리지널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둘째, 이용자 확보가 용이하다. 우선 HBO 가입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HBO 가입자는 3,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HBO를 가입해도 HBO Max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Altice One, Atlantic Broadband, Apple TV, AT&T TV, AT&T U-verse, Cox, DIRECTV, Optimum, RCN, Spectrum, Suddenlink, Verizon FIOS, WOW!, Xfinity가 해당한다.

셋째,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Netflix만은 못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PS4, Xbox One, iOS(버전 12.2 이후), Android(버전 5.0 이후), Android TV, Chromecast, Apple TV, Chrome, Firefox, Microsoft Edge, Samsung Smart TV(2016 이후 출시) 등이 지원된다.

넷째, ‘탤런트와 인플루언서’ 추천 목록을 제공한다. HBO는 짧은 영상과 함께 유명인의 선정작을 제공한다. 현재는 미국의 배우인 빌 헤이더(Bill Hader)와 레지나 킹(Regina King)의 추천작이 공개되어 있다.

다섯째, 디자인의 심플함이다. 콘텐츠가 방대함에도 끝없이 스크롤을 해야 하는 Netflix에 비해 깔끔하고 간편한 메뉴와 UX(User Experience)가 시원스럽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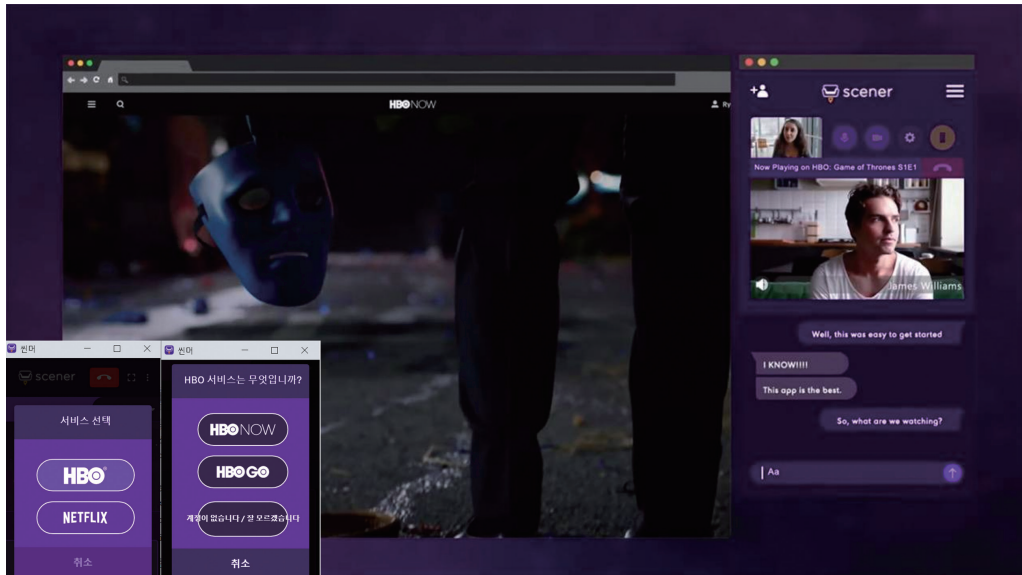
HBO Max의 약점으로 첫째, Roku와 Fire TV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HBO는 Comcast X1과 Flex 서비스뿐만 아니라 Apple iOS와 Google의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을 지원하므로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TV, 셋톱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이나 X박스를 비롯한 게임 콘솔 등 대부분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커넥티드 서비스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Roku(실사용자 4천만 명 이상)와 Amazon의 Fire TV에서는 아직 HBO Max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HBO Max에 대한 신규 가입자의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곧 계약이 이루어지리라 전망한다.

둘째, HBO(현 HBO Now)의 유지이다. AT&T의 기존 디지털 서비스인 HBO를 그대로 유지하여 HBO Max로 집중하지 못한다. 두 서비스 모두 월 비용은 14.99달러이다. 아마도 HBO가 Roku와 Fire TV 등 모든 디바이스에서 서비스가 된다면 HBO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4K와 HDR 스트림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HDR(High Dynamic Range)은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화상 처리 기법으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까지 더 넓어진 밝기의 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이용자는 고화질 콘텐츠를 TV와 연결하여 보는 경향이 있다. Netflix가 화질과 음질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HBO가 보유하고 있는 품질의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 10 시너(Scener)의 같이 보기 기능



넷째, ‘같이 보기’ 같은 소셜 기능이 제한적이다. 이 기능은 스타트업 기업 Scener가 개발한 것으로 PC에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최대 20명까지 다른 공간에 있는 친구나 가족과 같은 콘텐츠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Scener는 Netflix, YouTube, HBO Now, HBO Go를 지원한다. 그러나 아직 HBO Max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 현재 Scener로 HBO Now와 HBO Go만 실행이 가능하다(〈그림 10〉의 왼쪽 하단).

다섯째, 이용료 14.99달러는 비싸다. HBO의 콘텐츠가 좋다고 하지만 다른 서비스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 5월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HBO Max를 필수적인 OTT로 생각하지 않고, CBS All-Access 수준(월 5.99달러)으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무료 이용 기간이 타 플랫폼에 비해 7일로 짧은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 아니다.

여섯째, 오리지널 콘텐츠가 매주 하나씩 개봉한다. OTT의 특성이 몰아보기 성격이 강한데 라이브러리 콘텐츠 외에는 몰아보기(Binge Watching)를 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일곱째, 일부 기능의 불편함이다. 메뉴에서 특정 IP 회사를 선택했다가 돌아가면 직전으로 가지 않고, 홈으로 이동한다. 이용자로서는 불편함이 따른다.

6. HBO Max에 대한 반응과 전망

Digital TV Reserach에 따르면 2025년에 전 세계 SVOD 가입자는 5억 2,900만 명으로 증가하고, HBO Max는 순수 유료 가입자를 3천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하에 AT&T는 OTT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Morning Consult와 Hollywood Reporter가 HBO Max의 출범 10여일 전인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성인 2,2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HBO Max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많았다. Netflix에 공급하다가 중단한 <프렌즈>가 HBO Max에서 서비스한다는 것을 안다는 비율은 13%에 불과했다. <왕좌의 게임>도 24%이고, <빅뱅 이론>도 12%에 불과했다. 반면, Disney+의 <만달로리안(Mandaorian)>이 HBO Max에서 서비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비율은 95%, Netflix의 <기묘한 이야기(Stranger Things)>는 91%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케팅 기간을 3개월 잡았다가 1개월로 축소했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하려던 기회 또한 무산되었다. 앱 분석 회사인 Sensor Tower에 따르면, 론칭 첫날 HBO Max의 다운로드수는 87,000건에 불과하였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Disney+의 400만, Quibi의 30만과는 상당한 차이이다. 여기에는 기존 HBO Now와 HBO Go 이용자의 HBO Max로 업데이트한 것과 론칭전 12.99달러 프로모션 기간에 설치한 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HBO의 브랜드 때문에 HBO Max를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 HBO는 34%, Warner Bros. 32%, Cartoon Network 28%, Turner 클래식 영화와 Looney Tunes는 25% 정도에 불과하다.

개별 콘텐츠를 요인으로 HBO Max에 가입할 의향을 묻는 설문에는, <왕좌의 게임> 23%, <프렌즈>와 <빅뱅 이론> 21%, <반지의 제왕> 19%, <닥터 후(Doctor Who)> 16%, <세서미 스트리트> 10%, <가십 걸> 8%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7. 나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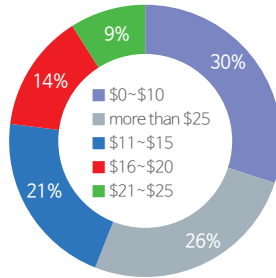
AT&T는 HBO Max 출범과 동시에 Apple TV 앱에서 HBO 채널 가입을 중단 시켜 더는 Apple TV를 통해 HBO Max에 가입할 수 없다. 기존 HBO 가입자는 계속해서 HBO Max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나 독점 콘텐츠는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이는 Apple TV 앱 스토어가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서비스로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OTT 서비스 간의 경쟁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AT&T의 Warner Bros.와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방송사인 Sky가 영국에서의 콘텐츠 공급계약을 연장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왕좌의 게임>의 스핀오프인 <하우스 오브 드래곤(House of the Dragon)>도 Sky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이것은 WarnerMedia와 Sky가 공동제작한 <체르노빌>이 2019년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작품상·감독상·각본상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내서 앞으로 더 협력하겠다는 의미이며, 워너 브라더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배급사 사장인 제프리 쉐슬링저(Seffrey R. Schlesinger)가 “Sky와 오랜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HBO Max를 영국에 이른 시일 내에 진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인다. 해외 확장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HBO Max의 글로벌 확장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AT&T에서는 HBO Max 가입자 전망을 2025년까지 5천만 명으로 보고 있다. Disney+가 단기간에 6천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모았지만, HBO Max에게도 이러한 행운이 같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스트리밍에 사용하는 비용이 15달러 전후로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Disney+는 Hulu와 ESPN+까지 11.99달러 번들 상품이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스포츠 경기가 거의 열리고 있지 않으나,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야외 활동에 목말라 했던 스포츠판들의 인기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7월 15일 NBC Universal가 Peacock TV가 론칭하면서 대형 OTT는 모두 출시되었다. 본격적인 OTT 전쟁이 시작되었다. Netflix, Disney+, HBO Max, PeacockTV, Amazon Prime, Apple TV+, CBS All Access, Quibi 등이 사활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된다. Morning Consult와 Hollywood Reporter가 2019년 7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는 OTT에 대해 월 21달러를 지불하려고 한다. OTT를 2~3개 정도 선택하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OTT 기업들은 선택받는 서비스에 속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이다.

그림 11 월 OTT에 대한 지출 의향



출처: Corus, Bloomberg

현재 국내에는 코리안 클릭 자료를 보면, Netflix가 5월 말 637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순 이용자를 갖고 있고 2021년에는 Disney+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OTT인 wavve와 tving이 경쟁력을 갖추어 Netflix 등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장에 대응을 잘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

1. <https://www.vox.com/culture/2019/1/7/18166911/netflix-friends-the-office-crisis>
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539290/hbo-now-subscribers/>
3. <https://www.latimes.com/business/hollywood/la-fi-ct-att-streaming-service-20181010-story.html>
4. <http://office.kbs.co.kbri/archives/25000>
5. <https://finance.yahoo.com/news/apos-everything-t-own-buys-174129389.html>
6. <https://adage.com/article/media/1499-month-hbo-max-your-priciest-new-streaming-option/2211271>
7. <https://www.nexttv.com/news/atandt-undercuts-netflix-with-hbo-max-20-off-promo>



8. <https://www.cnn.com/2020/05/27/hbo-max-with-ads-to-launch-in-2021.html>
9. <https://www.bnnbloomberg.ca/hbo-max-viewers-can-skip-opening-credits-in-break-from-tradition-1.1439308>
10. <https://www.theverge.com/2020/1/29/21113234/att-earnings-warnermedia-hbo-max-revenue-loss-netflix-streaming-wars>
11. <https://www.nexttv.com/news/hbo-max-everything-you-need-to-about-the-big-streaming-service-that-atandt-has-its-entire-future-riding-on-no-pressure>
12. <https://www.businessinsider.com/hbo-go-vs-hbo-now-vs-hbo-max>
13. <https://www.theverge.com/21272223/hbo-max-app-how-to-watch-download-price-subscription-stream-shows>
14. <https://observer.com/2019/10/etflix-disney-apple-amazon-hbo-max-peacock-content-budgets/>
15. https://www.forbes.com/s*jeffewing/2020/02/12/warnermedia-ramps-up-streaming-commissions-ahead-of-hbo-max-launch/#12bd69097099
16. <https://www.techradar.com/news/hbo-max-price-free-trial-movies-the-snyder-cut-and-more-explained>
17. <https://www.nexttv.com/news/hbo-max-launches-without-app-support-for-roku-and-amazon-fire-tv>
18. https://www.slashgear.c*/hbo-taps-scener-for-co-viewing-with-friends-using-chrome-browser-14620646/
19. <https://www.bnnbloomberg.ca/hbo-max-s-price-too-high-for-most-americans-streaming-budgets-1.1431584>
20. <https://www.bnnbloomberg.ca/hbo-max-viewers-can-skip-opening-credits-in-break-from-tradition-1.1439308>
21. <https://worldscreen.com/digital-tv-research-disney-forecast-reach-101-million-subscribers/>
22. https://morningconsult.com/2020/05/21/hbo-max-launch-streaming-polling/?mkt_tok=eyJpIjoiWm1NNU5qTXpabVUxTW10ayIsInQiOiJTND9qMmxLc0FaTmcwWnpIYWgxeRmEx4bWROULZscmNtMwvcjE4XC95MjlpXC9qYVNiXC9JbnppZFRqeG50MVFeqGNFcjQ4OHVORHQ3Z01NcENDVTM2XC9MK1FlakM4UWthM1FDZCtOcjhpd3JjUDk3dGdHeXpvYzBCSzVCbVlmTU1QIn0%3D
23. <https://www.fool.com/investing/2020/05/29/hbo-max-added-87000-new-users-on-launch-day.aspx>
24. https://www.statista.com/chart/21838/main-draws-to-hbo-max/?utm_source=Statista+Global&utm_campaign=3f8f2bb429-All_InfographTicker_daily_COM_PM_KW22_2020_We&utm_medium=email&utm_term=0_afecd219f5-3f8f2bb429-299562713
25. <https://www.theverge.com/2020/5/27/21272613/hbo-no-longer-available-new-subscribers-apple-tv-channels-max>
26. <https://deadline.com/2019/10/sky-warnermedia-confirm-euro-programming-deal-agreement-includes-game-of-thrones-prequel-1202772345/>
27. <https://www.bnnbloomberg.ca/hbo-max-s-price-too-high-for-most-americans-streaming-budgets-1.1431584>
28. <https://www.streamingmedia.com/Articles/Post/Blog/%2421-The-Amount-Consumers-Want-to-Pay-Barely-Covers-Two-Services-133351.aspx>